

기고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올해 초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매도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가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식이 급락한 3월 중순 이후 주가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상당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올리거나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최근의 주식시장은 이례적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뉴스에서 개인투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됨에 따라 올해 적용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졌고,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에서는 주식투자자와 관련된 각종 글과 동영상도 넘쳐난다.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많은 개인에게 주식투자가 자산 증식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올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이후 증권 시장에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상당수는 20대와 30대이다.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

지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주식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양상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국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때문이다. 주식의 가치는 미래에 해당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기업이 미래에 높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 예상된다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라면 주식의 가치가 내려간다.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주식 보유자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즉,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반적인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어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며, 경제를 둘러싼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선볼리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여

파로 유동성이 증가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가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가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올해 개인투자자들이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의 주식을 상당수 매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는 현상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와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유망한 종목을 직접 선정하여 구성한 이른바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코스피200과 같은 주가지수의 수익률(또는 이러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도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능가하는 펀드도 존재하

고,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 역시 존재한다. 다만, 주식투자에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위험(risk)이 따르며, 이에 따른 이익도 손실도 투자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통제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올해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받은 충격은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일부 계층은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물경제와 괴리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일말의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전기히터 얼마나 안전한가?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 가정에서는 보일러 외에 전기히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히터는 겨울철 부족한 난방을 저렴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장비이지만 그와 동시에 겨울철 주택화재 또한 많이 발생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전기히터는 직접적으로 '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난방제 품에 비해 화재에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2년간 발생한 1천건이 넘는 화재 중 히터나 전기

열선으로 인한 사고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히터는 직접 불을 발생시키지 않고, 높은 온도의 복사열을 사람이나 물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난방을 합니다.

이때 전기히터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은 300℃가 훨씬 넘는 높은 온도입니다. 이불이나 의자, 종이와 같이 불에 잘 타는 재질의 물체가 전기히터에 장시간 근접해있으면 온도가 상승하여 화염이 생깁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한 전기히

터 사용법은?

첫째, 전기히터 구입 시, 전도 안전장치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꼭 확인합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원통형 전기히터의 경우 벽면에 붙여 세웠을 때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열판을 장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기히터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합니다.

벽이나 가구에서 1m 가량 떨어

진 장소에 두고, 옷이나 이불 등으로 덮어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품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끕니다. 콘센트까지 완전히 빼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전열기기를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합선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안전 수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겨울철 전기히터 사용으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태홍/여수소방서소방정대소방교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